

전문 갤러리들 '화단 청량제'

무자년 새해를 맞아 광주지역 갤러리들이 침체된 미술시장을 타개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트페어(Art Fair·미술시장) 등 굵직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협회 창립을 추진하는 가 하면 전시회의 질을 높여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공예 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갤러리가 새로 문을 여는 등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광주지역 화랑가가 신년을 맞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갤러리협회'(가칭) 결성이다. 전시회를 열어도 그림을 사겠다는 컬렉터는 고사하고 관람객도 없는 극심한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나인갤러리, 자리아트 등 10여개의 갤러리가 협회 결성에 적극적이며, 최근 광주시청 등에 '갤러리 협회' 명칭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나인·무등·자리아트·원·상계·메트로·자미·북구청·일곡·문화·롯데·신세계 등 13개 갤러리가 운영중이다. 그동안 화랑협회가 있었지만 표류점 등 미술관련 일반 업체들도 협회



신년을 맞아 광주지역 갤러리들이 협회 결성을 추진하는 등 침체된 미술시장을 타개하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 포함돼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했다.

이에 따라 갤러리 협회는 침체된 미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트페어 준비

▲작가 지원 ▲국제 교류 추진 ▲화랑미술제 등의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여러 개의 화랑이 한 장소에 모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행사인 아트페어를 광주에서 열기 위해 갤러리 간의 대

아트페어 대비 '갤러리 협회' 결성 추진

'공예 전문' 우현 개관...원화랑도 재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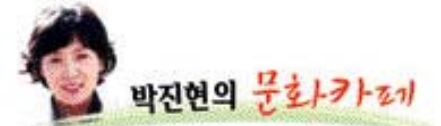
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각 갤러리의 전속 작가들을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튀어주는' 기획전도 함께 마련하고, 이들 작가들의 국제 교류도 지원한다. 아울러 갤러리 전속 작가들의 작품을 특별전시하는 화랑미술제도 열 예정이다.

지난 1997년 IMF 여파로 문을 닫아야 했던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원 갤러리가 최근 새 단장하고 문을 열었다. 원 갤러리는 31일까지 첫 전시회인 '도예가 김치준 초대'전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갤러리 우현도 지난해 12월말에 광주시 동구 장동에 터를 잡고 오픈했다. 조선대 미술대 노은희 교수·한경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우현은 금속·한지·염색 공예품 전시와 함께 상설 판매 공간을 따로 만들 계획이다. 문턱도 낮춰 6월에 70만원의 대관료만 받기로 했다.

갤러리 자리 아트 최만길 관장은 "지역 미술계가 너무 침체돼 있어 갤러리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미술 축제를 준비해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립미술관 '한건주의'를 경계한다

언제부터가 우리나라 주요 국공립 미술관은 외국 유명미술관의 분관(?)으로 전락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서립미술관은 가히 독보적이다. 지난 2004년 '사갈전'으로 대박을 터뜨린 이후 특별기획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수십여 개의 외국작가전을 줄줄이 '유치'했다. '마티스' '피카소' '마그리트' '모네' '반 고흐 전'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에도 서너 개의 초대형 명화전이 미술관 입성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예술의 전당도 예외가 아니다. '아트페어(미술작품을 팔기 위한 장터) 전문 미술관'이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굵직한 해외전을 꾸준히 열었다. '서양미술 400년 전'을 필두로 '대영박물관 한국전' '밀레와 바르비종과 거장전' '르네상스-바로크 회화걸작전' '인상파 거장전'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 '오르세 미술관 한국전' 등 면면도 화려하다. '블록버스터전'으로 불린 이들 전시회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그림'이라는 그럴듯한 홍보문구를 앞세워 짝퉁한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는 "재임시절 블록버스터전을 개최했다"는 성과를 노린 일부 국공립미술관장들의 한건주의도 한몫하고 있다.

올해는 이 대열에 광주서립미술관도 합류한다. 최근 상업성이 강한 외부기획사의 루벤스 명화전에 오는 7월20~11월15일까지 약 4개월간 서립미술관의 전시장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사실 미술애호가 입장에서 보면 이들 블록버스터전은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서울, 대전 등 타도시에 비해 블록 버스터전을 감상할 기회가 적었던 광주 시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문제는 이번 루벤스 전이 미술관 축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마련한 기획 전시라기보다 외부기획사에 의해 급조돼 패키지 차원에서 받아 들여진 것이라 데 있다. 이렇다 보니 전시의 철학과 내용이 빈약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외부기획사에 전시장을 대관하더라도 최소한 공공미술관으로서 전시를 유치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조망하는 제7회 비엔날레 기간(9월5일~11월9일)에 중세회화의 거장 루벤스전을 개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생뚱맞기 그지없다.

또한, 외부기획전에 4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역시 득보다 실이 크다. 특정 블록버스터전에 장기간 전시장을 할애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전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광주작가에게는 더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비엔날레는 서립미술관이 중의 공원벨트로 이전해 열리게 되는 만큼 무게감 있는 기획전을 개최함으로써 (비엔날레 관람객들에게) 광주미술을 알릴 수 있는 호기(好機)를 살리지 못하게 됐다.

명분도 약하고 공공성도 떨어지는 루벤스 명화전을 선택한 서립미술관, 임대료 몇 푼에 광주 문화의 자존심을 통째로 내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영상으로 배우는 '한국의 전통목조건물'

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배움터' 온라인 서비스

한국인의 멋과 선이 살아있는 전통 목조건물의 단아함을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13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유산 학술연구 영상콘텐츠' 구축사업을 끝마쳐, 14일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의 '문화유산 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배움터에는 ▲전통 건축 ▲북한문화재 ▲한국금석문 ▲문화유적발굴 ▲초등학교 사회 교과 내용 등 5개 부

문으로 구성됐다.

전통 목조건축은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기단과 초석, 기둥, 공포, 지붕, 내부, 장식과 창호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게재했다. 기능 및 구조원리 등도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일반인들이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학교 교과내용 중 한국의 석탑 연표와 옛 도읍지 여행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만들어 교육 부교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오는 2월께 이번에 제작



문화재청이 홈페이지에 마련한 영상 콘텐츠.

한 자료를 CD-ROM에 담아 배포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한·중 청소년 민속캠프 오세요'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참가자·자원봉사자 모집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2007 한·중 청소년 고싸움 놀이 민속캠프'에 참가할 청소년과 보조진행자(도우미)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캠프 참가자의 경우 광주지역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대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할 경우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홈페이지(www.macj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62-368-8042) 나 이메일

(macji1318@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9일~2월 1일 3박4일 동안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직접자사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중국 북경고등학생 30명을 초청해 한·중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는 물론 함께 우정을 나눌 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싸움 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와 함께 5·18 국립묘지·정월성 생가 방문·김치 담그기·광주권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62-368-8041.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규제품 입주기념 70~80% SALE

센스우드가구 전문점 Sense Wood

BIG SALE

요한이네 합인매장